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담당 : 공동상황실장 최은아, 황수영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8. 13. (총 4쪽)

보 도 자 료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일시 장소 : 08. 14. (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1.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연습(CMX), 21~25일 1부, 28~31일 2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2022'가 적용되고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8월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역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전쟁억제력 타격 수단 확대 보유, 실전 배치' 등을 발표하며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 끝 모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연습이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8월 14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전쟁 위기를 높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8월 18일\(금\) 오후 7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평화촛불 <전쟁 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다시 한 번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700여 개 국내 시민사회·종교 단체, 7대 종단, 7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은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 발언2 :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 발언3 : 김종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 김종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 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대규모 무력시위가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연합연습은 8월 15일부터 사전훈련 위기관리연습으로 시작하여 21~25일 1부 ‘방어’, 28~31일 2부 ‘반격’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합동요격지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는 작전계획이 적용되고, 미국 전략자산도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이후, 한미 정부는 핵 전력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연습해 왔습니다. 이어 8월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역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전쟁억제력 타격 수단 확대 보유, 실전 배치’ 등을 발표하며 공세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선제 타격’을 공표하고 이를 연습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핵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해상, 지상, 공중의 분계선에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어 충돌의 뇌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이 위험천만한 무력시위의 끝은 재앙일 뿐입니다. 모두가 유례 없는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력시위, 적대와 대결만을 부추기는 발언,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맹목적인 진영외교로 모두를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권 종말이나 전쟁을 운운하며 상대를 도발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능한 정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정전 70년을 맞아 유엔 사무총장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우려하고 “평화를 위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이 정기적인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한반도 역내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변국과 미국 본토, 전 세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 전쟁 위기를 막는 길은 지금 당장 적대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정전 70년의 한반도는 지금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전쟁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붙임2. 발언문/ 김종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군사훈련도 법에 근거해야 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우리 법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법적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은 조약의 목적을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평화적 해결 원칙, 무력위협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에도 같은 원칙이 명시되어 있죠. 우리 헌법도 국제평화주의, 침략전쟁 부인, 평화적 통일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체제 전복, 그리고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의 무력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훈련이 아니라 북의 무력공격의 징후만 포착되도 선제공격을 하고 나아가서 점령까지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방어의 원칙, 평화적 해결 원칙, 무력위협금지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격적 성격의 전쟁훈련은 국민의 평화적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입니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제로 전쟁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과 규범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북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누구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화적이며 비용도 적게 드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대규모 전략자산을 전개하여 혈세를 낭비하며 힘자랑을 하고 무력대결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북의 대응방식을 분석해 보면 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축소, 강행 여부를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전쟁훈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